

PACKAGING NEWS



협회 · 회원사

- (사)한국포장협회 잉크분과위원회 회원 간 정보교류 강화
- (사)한국포장협회 골프동호회 납폐모임
- 신명이노텍 문근식 대표이사, 모범상공인 수상
- (주)싱크라보라토리, (사)한국포장협회 신입회원 가입
- 울촌화학(주), 새 먹거리 '2차전지 소재' 에 올인
- SKC, 롯데이네오스 손잡고 친환경 소재 생산 확대
- 한국컨테이너풀(주), '플랜탁스' 와 미용성형 의료용품 물류시스템 공동 구축 추진
- 한국컨테이너풀(주), K리그 경기에 다화용 컵 시범 도입
- 코오롱인더스트리(주), 2022년 3분기 매출 공개

업계

- 국토교통부, 물류의 날 기념식 및 컨퍼런스 개최
- (사)한국패키징단체총연합회, 실무담당자 회의
- (사)한국패키징단체총연합회, 제23회 이사회 개최
- (사)대한인쇄문화협회, 2022 국제친환경인쇄컨퍼런스 개최
- 한국인쇄학회, 2022년 추계학술 논문발표회 개최
- 한국환경포장진흥원, 제12회 그린패키징 공모전
- (사)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 산업대상 및 창의성 공모전 개최
- 한국골판지포장산업협동조합, 한국골판지포장산업 70년사 출판기념회
- 한국포장수출입협의회, 제11차 정기총회 개최
- (사)한국포장기계협회, 창립 28주년 기념식



(사)한국포장협회 잉크분과위원회

회원 간 정보교류 강화

잉크 업계의 어려움 극복에 대해 논의

(사)한국포장협회 잉크분과위원회(위원장 신정열)가 지난달 24일 협회 회의실에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올 들어 지속되고 있는 잉크업체들의 어려움이 갈수록 더 해 가고 있다고 의견을 모으고 어려움 극복을 위해 정보 교류를 강화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참석 회원들은 잉크 원부자재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음에도 사용자들은 가격 인하와 거래 중단 압력 등 견디기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 있다며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모색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입을 모았다.

잉크 업계는 올 들어 물량이 최대로 줄어들어 공장 가동을 줄이고 있는 상황에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원재료 가격 상승과 환율인상, 금융비용 상승 등 3중, 4중고에 시달리고 있으며 앞으로의 경기 전망도 어두워 힘들어 하고 있다.

분과위는 이러한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극복하기 위해 회원 간 정보교류로 위험요소 제거, 협업강화 등을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위원회는 내년부터 위원회 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새로운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 (사)한국포장협회 잉크분과위원회가 지난 11월 24일 잉크 업계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 정보 교류를 가졌다.

(사)한국포장협회**골프동호회 납폐모임**

김보철 신임 회장 선임

(사)한국포장협회 골프동호회(회장 김보철)가 지난달 23일 납폐 모임을 갖고 신임회장으로 김보철 (주)진명하이텍 대표를 선임했다.

이날 모임에서 지난 5년간 동호회를 이끌어 온 신정열 회장이 새로운 활력을 위해 사임의사를 밝혀 후임 회장을 선임하였으며 2023년부터 활동하게 된다.

신정열 회장은 인사말에서 “그동안 코로나 등 주변 환경의 영향으로 동호회가 침체되었는데 새로운 활력을 얻기 위해서는 젊은 회장이 필요하다”며 사임을 요청했다.

김보철 신임 회장은 “앞으로 작은 변화를 시작으로 동호회를 더욱 활성화 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 우승 노창균 삼영잉크페인트제조(주) 상무이사, 니어리스트 이승배 ㈜이콜 대표이사, 룡계스트 김보철 (주)진명하이텍 대표이사, 행운상 신정열 (주)아이피씨 대표이사가 수상했다.

동호회는 2023년 3월 시구회를 갖는다.



▲ 한국포장협회 골프동호회가 지난 11월 23일 납폐모임을 갖고 김보철 대표를 신임회장을 선임했다.



회원사의 창립기념일을 축하드리며 끊임없는 발전과 성장이 계속되기를 기원합니다.

(사)한국포장협회 회원사 임직원 일동

[주]디어스엠
2005년 12월 1일 창립 17주년

[주]영진하이텍
1971년 12월 1일 창립 51주년

삼일포장산업(주)
1996년 12월 5일 창립 26주년

[주]명지씨앤피
1986년 12월 6일 창립 36주년

팩플러스(주)
2004년 12월 15일 창립 18주년

한국포장기술연구소
1972년 12월 15일 창립 50주년

세창화학(주)
1977년 12월 20일 창립 45주년

[주]한국알미늄
2008년 12월 24일 창립 14주년

(주)신명이노텍 문근식 대표이사

모범상공인 수상

지역경제 성장 보탬이 되도록 노력

문근식 신명이노텍 대표이사가 지난 11월 16일 경기도 화성시 화성상공회의소 4층 컨벤션홀에서 열린 ‘2022년 하반기 모범상공인 및 장기근속모범근로자 표창 시상식’에서 모범상공인으로 선정돼 수상했다.

화성상공회의소는 매년 분기마다 관내 회원기업 중 기업 경영에 타의 모범이 되고 지역경제 성장·발전에 기여한 부사장직급 이상의 유공자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 표창 수여식에서는 모범상공인 표창 10명, 장기근속모범근로자 8명이 표창장을 수여 받았다.



▲ 문근식 신명이노텍 대표이사가 지난 11월 16일 '2022년 하반기 모범상공인 및 장기근속모범근로자 표창 수상식'에서 모범상공인으로 수상됐다.

신명이노텍 문근식 대표이사는 이 자리에서 “앞으로도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지역경제 성장 및 발전에 더욱 도움이 되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주)싱크라보라토리

(사)한국포장협회 신입회원 가입

그라비아 레이저 제판설비 제조 기업

(주)싱크라보라토리(대표 시계타 타츠오)가 (사)한국포장협회의 신입회원사로 가입했다.
싱크라보라토리는 1966년 설립되어 그라비아 레이저 제판설비를 전문 제조해온 기업이다.

(주)싱크라보라토리

본사 공장 / 3공장 / FXJ동 : 일본 지바현 가시와시 다카다 1201-11

2공장 : 오사카 <주소> 일본 오사카부 히가시오사카시 미즈하이 3-9-41

주요생산품목 : 그라비아 레이저 제판설비 NEWFX, NEWFX용 소모약품, 정밀부품 생산용 특수
그라비아를 제작

전화 : +814-7143-6760 팩스 : +814-7146-0566 홈페이지 : <http://www.think-lab.com>



싱크라보라토리 관계자는 “주식회사 싱크라보라토리는 친환경 인쇄를 위한 저심도 레이저 그라비아 제판 설비와 소량다품종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성 디지털 잉크젯 인쇄 설비를 제조 및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다”며, “앞으로는 한·일간의 협력을 통해 서로가 상생하며 성장하는 좋은 환경을 가꾸어 한국의 제판 및 인쇄 시장에 좋은 바람을 불어 일으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울촌화학(주)

새 먹거리 ‘2차전지 소재’에 올인

평택에 배터리 알루미늄파우치 공장 설립키로

농심그룹 계열사 울촌화학(주)이 리튬이온배터리(2차전지) 제조에 필요한 알루미늄 파우치 공장을 설립키로 했다.

울촌화학은 지난 달 1일 이사회를 열고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에 2차전지 제조용 알루미늄 파우치 공장을 짓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투자규모는 836억 원이며 준공 예정일은 내년 12월 31일이다. 울촌화학은 지난 6월말 기준 보유 중인 226억원 가량의 현금성자산 및 차입을 통해 투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다.

이번 투자는 지난 9월 얼티엄셀즈(Ultium Cells)와 체결한 알루미늄 파우치 공급계약 물량을 생산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계약 내용에 따르면 울촌화학은 GM과 LG화학의 합작사인 얼티엄셀즈에 내년 1월부터 5년간 10억4,202만달러(1조4872억원)치 알루미늄 파우치를 납품하기로 했다.

울촌화학(주)은 2차전지 소재시장 진출로 매출구조를 다변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울촌화학은 그룹사 농심 등에 납품하는 포장재(라면, 과자 등)를 통해 실적을 올리고 있다. 올 상반기만 봐도 총매출(2,731억원) 가운데 77.7%(2,122억원)가 포장재부문에서 나왔다. 하지만 알루미늄 파우치 생산이 본격화 될 내후년부터는 전자소재부문의 외형 확대에 농심 등 식품사에 의존하는 매출구조가 개선될 가능성이 큰 편이다.

SKC

롯데 이네오스 손잡고 친환경 소재 생산 확대

친환경성 강화한 화학제품 생산 체계 구축

SKC가 투자한 화학기업 SK피아이씨글로벌이 글로벌 화학사 이네오스와 손잡고 친환경 화학소재 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SK피아이씨글로벌은 지난 달 11월 7일 오후 서울에서 이네오스스티롤루션과 재생 가능한 친환경 스티렌



▲ 원기돈 SK피아이씨글로벌 대표(오른쪽)와 아르트 코티츠카 이네오스스티솔루션 부사장

모노머(SM) 사업을 공동 추진하는 내용의 협약을 맺었다. 협약식에는 원기돈 SK피아이씨글로벌 대표와 아르트 코티츠카 이네오스스티솔루션 부사장 등 양사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네오스스티솔루션은 영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화학기업 이네오스의 스티렌 사업 계열사다.

SM은 고부가 프로필렌글리콜(PG)의 원료인 프로필렌옥사이드(PO)를 생산하기 위해 함께 생산하는 화학 제품이다. SK피아이씨글로벌은 이 같은 PO-SM 병산 공법과 함께, 2008년 세계 최초로 부산물로 물(H₂O)만 생성되는 친환경 HPPO 공법 상업화에 성공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SK피아이씨글로벌은 두 가지 공법을 보다 친환경적으로 이용해 PO를 생산할 수 있게 된다.

협약에 따라 SK피아이씨글로벌은 바이오 유래 원료,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등 친환경 원료를 기반으로 생산한 소재를 활용해 SM을 생산한다. 이네오스스티솔루션은 SK피아이씨글로벌에서 공급받은 친환경 SM으로 ABS를 비롯한 제품을 생산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SK피아이씨글로벌과 이네오스는 보다 친환경성을 강화한 화학 제품 생산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양사는 SM 생산 및 활용을 위해 글로벌 친환경 소재 인증인 'ISCC PLUS(International Sustainability & Carbon Certification PLUS)'를 연내 획득,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친환경 SM을 생산하고 활용하는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SK피아이씨글로벌 관계자는 “점점 더 많은 고객들이 제품, 공급망 전반에 걸쳐 ESG 경영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네오스스티솔루션과 협력하는 친환경 SM 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더욱 줄여 나가며 ‘2040 온실가스 넷 제로’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네오스스티솔루션 관계자는 “당사는 2030년까지 100만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50만톤의 친환경



경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목표로 가지고 있다”며, “SK피아이씨글로벌과의 이번 협약으로 지속가능한 미래에 대한 약속을 지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컨테이너폴(주)

‘플랜닥스’와 미용성형 의료용품 물류시스템 공동 구축 추진

양사 간 협력으로 물류시스템 공동 구축 및 시스템 고도화 목표

한국컨테이너폴(주)(이하 KCP)은 최근 ‘플랜닥스(PLANDOCS)’와 의료기기 및 의약품 도매유통 분야에 대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플랜닥스는 미용성형 전문 유통 플랫폼으로 미용성형 중심의 의료기기, 의약품, 의약외품 등을 유통하고, 의료진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 기업이다.

KCP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의료기기 및 의약품의 효율적 관리가 가능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며, 물류센터 운영, 실시간 온도 관리, 배송 조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ESG 경영을 지원할 수 있는 다회용 박스를 개발하여, 생물학제제 의약품 및 일반 의료기기 수배송에 활용하고, 물류센터 최적화, 당일 배송체계 구축 등을 위한 물류 컨설팅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양사는 미용성형 의료용품 공급망 전 과정을 통합한 물류시스템을 공동 구축하고, 역할 분담 및 협



▲ 한국컨테이너폴 서지영 대표이사(오른쪽 네 번째)와 플랜닥스 이남현 대표이사(왼쪽 네 번째)가 전략적 협력 양해각서(MOU) 조인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력을 통해 의료 바이오 부문의 물류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한다는 목표를 밝혔다.

서지영 KCP 대표이사는 “국내 의료기기 및 의약품 시장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온라인 유통이 활성화됨에 따라 의료 바이오 부문의 물류 서비스 품질 향상과 전국 의료기관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번 플랜닥스와 업무협약을 통해 의료 바이오 물류 부문에 전문화 하는 등 차별화된 물류 역량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컨테이너풀(주)

K리그 경기에 다회용 컵 시범 공급

다양한 행사장 및 식음료 매장 등 일반인 대상의 다회용 컵 사업 확대할 계획



▲ 한국컨테이너풀은 10월 개최된 K리그내 일회용 컵을 다회용 컵으로 대체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한국컨테이너풀(주) (이하 KCP)이 축구경기장 다회용 컵 대체 시범사업을 진행했다고 지난 11월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KCP의 ESG 친환경 물류 패키징 사업 'ReRe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축구경기장에서 흔히 사용되는 일회용 컵을 다회용 컵으로 대체하기 위해 추진했다.

KCP는 지난 5월부터 스포츠블록체인 기업 '프로젝트워드'와 협력해 축구경기장 내 일회용 컵을 다회용 컵으로

대체하는 물류 서비스 시스템 및 프로세스 등을 구축해왔다.

다회용 컵 시범 사용은 10월 중 개최된 K리그 12개 구단의 20게임 및 FA컵 결승 일부 구역에서 진행했다. 해당 경기마다 고객이 구매한 음료를 개별 QR코드가 인쇄된 다회용 컵으로 제공하고, K리그 멤버십 어플리케이션 'Kick'에서 사용 컵 반납 인증 시 리워드 제공 이벤트를 통해 회수율 및 사용 이력을 관리했다.

KCP는 다회용 컵과 회수함 개발부터 컵의 회수 및 세척, 운송까지 전반적인 프로세스 전 과정을 구축하고 운영했다. 다회용 컵의 생산은 식음료 사출 전문 용기 기업 '승화P&P'를 통해 진행했다.

환경적 측면에서 다회용 컵은 일회용 종이컵 대비 73%의 탄소배출량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회용 컵을 생산, 재활용, 회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은 6gCO₂(연간 30회, 2년 사용 기준), 일회용



종이컵을 생산, 재활용하는 과정에서는 21gCO₂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이 매일 다회용 컵을 이용한다면 탄소배출량을 매년 5.5kgCO₂씩 저감할 수 있으며, 이는 매년 나무 0.83그루는 심는 것과 동일한 수준이다.

KCP는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스포츠 경기장에 이어 다양한 공간으로 다회용 컵 대체 사업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공연 행사장 및 일반 식음료 매장의 일회용 컵을 다회용 컵으로 대체해 이용자들에게 친환경 동참 경험을 제공한다는 목표다.

또한 기업 사무공간에서 사용되는 일회용 컵 및 세척이 번거로운 개인 컵을 다회용 컵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이연승 KCP 소비재마케팅본부장은 “이번 축구경기장 다회용 컵 시범 사업을 통해 일반 소비자 시장의 다회용기 적용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사용 및 관리의 편의성을 개선하고자 RFID(추적 관리 시스템)를 적용한 2세대 다회용 컵 개발과 폐기 컵을 업사이클링한 굿즈로 다회용 컵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등 다회용기 사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오롱인더스트리(주)

2022년 3분기 매출 공개

어려운 상황에서도 타이어코드, 아라미드가 선방

코오롱인더스트리(주) (대표이사 사장 장희구)는 지난 11월 8일 영업(잠정)실적 공시를 통해 2022년 3분기 매출액 1조 2,589억원, 영업이익 510억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IFRS 연결 기준) 매출액은 제조부문에 있어 타이어코드, 아라미드 등 산업자재 주요 제품의 성장과 화학 및 패션부문의 고른 매출 성장을 통해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했으나 영업이익은 필름/전자재료부문의 고객사 수요 감소 및 중국 내 도시 봉쇄 조치 장기화 등 대외 악재의 여파로 전년 동기 대비 36.7% 감소했다.

산업자재부문은 타이어코드와 아라미드가 성장세를 이끌고 있다. 타이어코드는 운임 감소와 교체용/신차용 타이어의 견조한 수요에 힘입어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9월 베트남 공장 증설로 향후 추가 매출 확대와 이익을 기대하고 있다. 아라미드는 5G 광케이블 보강재 시장의 성장과 전기차 시장 확대에 따른 하이브리드 타이어코드와 고성능 브레이크 패드 수요 증가로 호실적을 달성했다. 아라미드 더블업(Double-Up) 증설이 내년 하반기 완료되면 매출 및 영업이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화학부문은 석유수지의 경우 원료가 안정세와 함께 수요가 지속 유지되고 있으나 예폭시수지는 주요 수출국 가인 중국 봉쇄에 따른 수요 둔화로 매출 및 영업이익이 감소했다. 필름/전자재료부문은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에 따른 수요 감소와 함께 고객사 재고 축소로 인한 설비 가동률 조정으로 실적이 감소했다.

패션부문은 3분기 기준 역대 최대 매출액을 기록했다. 3분기는 패션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브랜딩과 상품력 개선에 집중해 아웃도어와 골프를 필두로 전 브랜드가 고른 성장세를 보였다. 코오롱스포츠는 전략상품의 상품력 강화와 지속가능 아웃도어 브랜딩을 통해 기존 고객은 물론 MZ세대 신규 고객 유입을 이끌었다. 지포어 등 골프 브랜드는 차별화된 디자인으로 매출 개선에 기여했으며, 기존 남성복과 여성복, 잡화 등도 고르게 매출 신장을 이어가고 있다. 코오롱인더스트리 관계자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타이어코드와 아라미드가 선방하고 있고 원자재 가격 및 물류비의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4분기는 패션부문의 전통적인 성수기로 실적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물류의 날 기념식 및 컨퍼런스 개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물류종사자를 위한 소통과 협업의 장 마련

제30회 물류의 날 기념식 및 컨퍼런스가 지난 11월 1일(화) 오전 10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했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통합물류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의 공동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국토교통부 어명소 제2차관, 한국통합물류협회 최원혁 회장을 비롯하여 정부포상 수상자 등이 참석하였다.

한국통합물류협회 최원혁 회장은 인사말로 “지난 수 십 년간 대한민국 발전을 견인해온 것이 물류산업이다.



▲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11월 1일 개최된 2022 물류의 날 기념식 행사

높아진 위상에 걸맞게 물류의 혁신을 통해 산업계 전체의 혁신을 주도해야할 것이다”며, “한국통합물류협회도 물류인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말을 끝으로 행사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서, 제30회 한국물류대상 시상식이 열렸다. 올해는 은탑 산업훈장 1점, 포장 2점, 대통령표창 4점, 국무총리표창 6점, 국토교통부장관표창 3점을 전수했으며, 4개의 단체가 소화물배송대행 서비스사업자 인증을 수여받았다.

시상식 진행 이후 물류인들을 국토교통부의 어명소 제2차관은 격려사에서 “정부는 물류산업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대한민국의 대표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첨단 물류 인프라를 적극 확충 및 디지털 물류로의 전환도 적극 투자하고, 물류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정책적 관심을 기울이는 동시에, 물류 스타트업 육성 물류 전문 인력 양성 각종 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다”는 말과 함께 “정부의 노력에 물류 업계에 여러분에 관심과 협조가 더해질 때 물류 산업의 미래가 한층 밝아질 것이므로 물류인들 또한 열정과 의지를 하나로 모아 물류산업의 전진과 성장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기념식과 함께 제30회 물류의 날 행사에는 ‘고부가가치 지향 물류 산업의 재도약’이라는 주제로 물류 컨퍼런스도 함께 열렸다. 컨퍼런스는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진흥원의 장근무 원장과 KSLF 2022 민순홍 운영위원장의 컨퍼런스 축하 인사말에 이어 산업연구원 주현 원장의 ‘한국 산업의 대전환과 물류산업’이라는 기조연설이 있었다.

또한, 13시 이후부터 진행된 컨퍼런스는 포스코 플로우 김기형 박사의 ‘물류산업 재도약을 위한 상생 방안’이라는 컨퍼런스 이후 A트랙 ‘미래물류 산업 전망 및 대응방안’과 B트랙 ‘상생과 ESG 관점의 물류’로 주제를 나누어 중회의실 A와 B에서 다양한 컨퍼런스를 진행하며, 물류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혁신적 아이디어와 지식을 공유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사)한국패키징단체총연합회

실무담당자 회의

이사회 결과, 협업 등 논의

(사) 한국패키징단체총연합회(회장 이한영) 실무담당자들이 지난달 24일 (사) 한국포장협회 회의실에서 회의를 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제23차 이사회에서 결정된 포장진흥법 추진에 대한 설명과 각 단체 간 협업 등이 논의되었다.

실무담당자 회의에서는 포장진흥법 추진을 위한 기금 모금, 미납회원 처리, 차기 회장 선임 및 사무국 이전, 회원간 협업 및 변동에 대한 내용이 다루어졌다.

기금모금과 관련하여 추진 TF팀 구성 및 운영 없이 모금이 가능할 지에 대한 의문과 사무국 이전은 연합회 운영 자체가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의견이 중론이었다.

오선진 전무이사는 지금까지 사무국 역할을 하며 봉사하였지만, 한국포장협회 사무국에게 짐을 지우는 것은



▲ (사)한국패키징단체총연합회 실무담당자 회의가 지난 11월 24일 협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기존 업무 처리에도 힘겨워 하는 직원들에게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회원 간 정보교류 및 협업과 관련하여 각 단체간 설명과 함께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한국공업포장협회의 수송용 합판에 대한 등급 삭제 등에 대한 연합회 차원의 의견을 제출하기로 하였다.

(사)한국패키징단체총연합회

제23회 이사회 개최

포장진흥법 추진 경과 및 향후 진행 방향 조율

(사)한국패키징단체총연합회(회장 이한영)가 지난 11월 8일 (사)한국포장기술사회 회의실에서 이사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한영 회장을 비롯해, (사)한국포장협회, (사)한국포장기술사회, (사)한국공업포장협회, 한국포장기술인협회의 등의 단체장 및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포장진흥법 추진 경과에 대한 설명과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하고, 진흥법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5천만 원을 목표로 기금을 모금하기로 했다. 기금이 모아지면 포장진흥법 T/F팀을 구성하여 세부 전략을 세워 나갈 계획이다.

이어 ▲ 회비 장기 미납회원에 대한 자격 심의 ▲ 임원진 임기 만료에 따른 후임 인선 조율 ▲ 제7차 정기총회 일정 ▲ 이사회 운영 방안 ▲ 2023년 KPO 사업 및 회원 확대 및 교류 강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다음 이사회 회의는 1월 중 개최할 예정이다.

대한인쇄문화협회

2022 국제친환경인쇄컨퍼런스 개최

영국 Edale 플렉소 인쇄기 국내 런칭 기념 기자 간담회도 진행

이번 2022 국제친환경인쇄컨퍼런스는 특별히 영국 Edale 플렉소 인쇄기 국내 런칭 기념 기자 간담회와 같이 개최됐다. 서울시 중구 스테이락 호텔 5층 세미나홀에서 11월 3일 오전 10시 반 진행된 기자 간담회는 DKSH 코리아에 대한 소개와 영국의 edale의 플렉소 인쇄기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DKSH 코리아는 지난 1989년 설립되어 소비재, 헬스 케어, 생활화학, 기계 등 분야에서 폭넓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으로 3년 전 PPC 비즈니스 라인을 확충하며 edale의 플렉소 인쇄기를 국내 런칭하게 되었다. 75년의 역사를 가진 영국의 edale은 월드클래스의 기술력을 갖춘 인쇄기기 제조 기업으로 간담회를 통해 회사 소개와 edale의 주력 제품인 FL5과 FL3의 성능을 소개했다.

2022 국제친환경인쇄컨퍼런스는 ‘친환경인쇄 솔루션 현황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한국인쇄학회 오성상 교수가 초빙돼 기조연설로 ‘인쇄산업 및 친환경 트렌드’에 대해 발표했다.

영국 edale의 Mr. Darren Pickford Sales Director(DKSH Korea 이근성 상무 통역)의 ‘친환경 플렉소 인쇄 솔루션’ 강연으로 시작된 컨퍼런스는 디어스아이 신재근 책임연구원이 ‘친환경 Low Migration Package’ 강연을 통해 친환경 식품포장 신소재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Condaир 지형철 지사장은 ‘친환경 인쇄 환경에서 요구되는 가습 및 습도제어’를 통해 ‘인쇄환경에서 가습이 중요한 이유를 심도 있게 다뤘고, 마지막으로 한국 컷팅의 김주정 실장이 ‘옥외광고산업의 친환경 동향’이라는 주제로 PVC에서 환경에 무해한 대체소재로 전환되고 있는 옥외광고물 산업의 현황에 대해 강연했다. 한편, 본 컨퍼런스는 ‘친환경인쇄 글로벌 트렌드’에



▲ 지난달 11월 3일 영국 Edale은 플렉소 인쇄기 국내 런칭을 기념하여 기자 간담회에서 회사 소개, 제품 설명 등을 소개했다.

초점을 맞춰 지난 2007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행사로, 그동안 인쇄 관련 기업 및 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친환경 인쇄에 대한 많은 의견이 논의됐고 이를 통해 인쇄업계 현안에 대한 다양한 해결책 및 대안이 제시된 인쇄업 발전을 위한 정보공유의 장이다.

한국인쇄학회

2022년 추계학술 논문발표회 개최

학술논문 3건, 초청강연 4건 발표

한국인쇄학회(회장 오성상)는 전문 인쇄인들의 정보교류와 학술 연구 활성화를 위해 지난 11월 17일 서울 충무로 소재 PJ호텔 카라디움홀에서 추계학술논문발표회 및 4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논문발표회에서는 학술논문 3건, 초청강연 4건의 발표를 통해 인쇄산업의 발전을 논의했다.

학술논문 세션에서는 (주)타라TPS 김용민 본부장의 ‘인쇄 견적서 작성에 관한 연구’에 대한 논문을 시작으로 (주)성원애드피아 노경환 팀장의 ‘스크린 인쇄의 부분 코팅을 활용한 도공지 포장 케이스 폴드크랙 보완에 관한 연구’, (주)성원애드피아 정창희 이사의 ‘UV 인쇄의 인쇄적성 및 생산 최적화에 관한 연구’에 대한 소개가 이어졌다. 초청강연에서는 대한인쇄문화협회 조갑준 부장의 ‘포스트코로나 및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인쇄 산업’, (주)스크린에이치디코리아 심홍렬 차장의 ‘디지털인쇄 시장의 최신 트렌드&미래경쟁력’, 강원대학교 제지공학과 남기영 전임강사의 ‘국내외 제지사와 지류유통사 향후 발전 전망’, 코트라경기지원단 정장섭 전문위원의 ‘인쇄물 수출을 위한 해외 시장 진출’이 소개됐다.

오성상 회장은 “한국인쇄학회가 우리나라 인쇄정보 산업분야의 최고 학회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학회 활동에 꾸준히 참여해 온 업계와 학계 회원, 역대 임원 등의 헌신적인 노력과 봉사가 있었기 때문이다”며 “앞으로도 학회 발전이 계속되기 위해서는 회원들의 참여와 봉사적인 학술 활동이 계속 되어야 함을 다 같이 명심해야 한다” 강조했다.

(사)한국환경포장진흥원

제12회 그린패키징 공모전

일반 학생부문 시상

(사)한국환경포장진흥원(원장 이명용)이 지난달 18일 제12회 그린패키징 공모전 시상식을 거행했다.

(사)한국환경포장진흥원이 주최하고 환경부가 후원하는 이 행사는 일반부문과 학생부문을 나눠 시상하



▲ (사)한국환경포장진흥원이 지난 11월 18일 제12회 그린패키징 공모전 시상식을 거행했다.

였는데 대상에는 일반부문 이상봉 CJ제일제당 ‘라벨프리 스펀 선물세트’, 학생부문 사효인, 박채원 안양대 ‘택배 단상자의 낭비 없는 활용’이 받았다.

이와 함께 일반부문 최우수상 3점, 우수상 3점, 특선 4점, 학생부문 최우수상 2명, 우수상 2명 특선 4명이 수상했다.

그린패키징 공모전은 친환경 포장에 대한 인식 및 관심을 제고하고 의식을 고취시킴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녹색성장, 녹색 소비생활에 기여한 우수한 친환경 포장 기술 및 디자인 사례를 발굴하여 시상하는 제도이다.

(사)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

산업대상 및 창의성 공모전 개최

유닛로드시스템 컨퍼런스도 함께 열려

(사)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회장 서병륜)는 지난 11월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제19회 한국파렛트컨테이너산업대상’ 개최하였다.

제19회 한국파렛트컨테이너산업대상 ‘은 표준 파렛트와 컨테이너의 생산 및 사용에 있어 가장 모범이 되는 우수한 업체와 이러한 활동에 헌신한 개인 또는 단체를 발굴, 포상함으로써 유닛로드 시스템의 보급 확산을 촉진하여 국내 산업물류 효율화에 기여하고자 주어지는 행사이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의 확산방지 예방 지침에 따라 대면과 비대면을 혼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사전 참석인원을 조정하여 행사 당일 주최 및 발표자와 수상자 등 주요 인원만 참석하도록 하였다. 또한, 유튜브로



▲ 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는 지난 11월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9회 한국파렛트컨테이너산업대상' 및 '제9회 유닛로드시스템(ULS) 창의성 공모전'이 개최됐다.

실시간 방송을 진행하여 온라인으로 생중계되었으며, 시상식 현장은 철저한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진행했다.

올해 수상은 기업별 파렛트 유닛로드시스템 부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에 하이트진로음료(주), 국가기술표준원장 표창에 (주)대도화학이 수상하였으며, 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장 표창으로는 천안배원에농업협동조합, (주)로지스월드, (주)지제이알미늄이 수상하였다. 또한, 기업별 컨테이너 유닛로드시스템 부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에 현대모비스(주), 국가기술표준원장 표창에 (주)빙고가 수상하였으며, 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장 표창으로는 모두유통(주) 농업회사법인, (주)구영테크, (주)건영테크놀로지가 수상하였다.

그리고 개인별 수상인 공로상 부문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에 용마로지스(주) 금중식 대표이사, 국가기술표준원장 표창에 한국건설생활시험연구원 오재영 센터장이 수상하였으며, 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장 표창으로는 동명대학교 신석현 교수가 수상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 표창을 받은 하이트진로음료는 표준규격화된 파렛트 사용으로 물류 효율성 향상과 국가 물류 표준화에 기여 해왔다. 현대모비스(주)는 자동차 부품 일회용 포장재에 의한 탄소배출 제로화를 위한 시스템의 안정적 도입 및 향후 수평 전개를 통한 글로벌 자동차업계 전반에 확대 적용해도 많은 노력을 전개해주고 있다. 용마로지스(주) 금중식 대표이사는 지속적인 신규 직원 채용을 2019년 551명이었던 근로자 수를 2022년 6월 610명으로 약 10.7%를 증가시켰고, 정규직 채용 등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로 의약품·화장품 물류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다.

한편, 이번 시상식은 및 '제9회 유닛로드시스템(ULS) 창의성 공모전'이 '글로벌 유닛로드시스템 컨퍼런스' 행사와 함께 개최되었다. 제9회 유닛로드시스템 창의성 공모전은 일반부와 학생부로 구분하여 컨테이너 및 물류장비를 비롯한 순환물류기기(RTI: Returnable Transport Item)를 대상으로 유닛로드시스템 구축전략 및 보급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2014년부터 매해 진행되고 있다.

올해 일반부 수상내역으로는 대상에 「가락시장 파렛트 유닛로드시스템 전면 도입」 주제의 물류혁신팀, 우수상에 「파렛트 회수 차량 배차 전략」 주제의 TSP(팀), 「양과 적재틀」 주제의 양과사랑 농촌발전팀 장려상에 「RRPP Business 활성화를 위한 추가 용기 개발」 주제의 Rproject(팀), 「10L PET 요소수 용기」 주제의 대우CCP(팀)이 수상하였다. 또한, 학생부 수상내역으로는 대상에 「Reusable Perch Pallet(RPP)」 주제의 비상(팀), 우수상에 「한중일 파렛트풀시스템을 위한 통관절차 재고」 주제의 이걸해내조(팀), 「Reuse Box 규격 개선」 주제의 그린(팀), 장려상에 「에너지 하베스터-스마트택트 내장형 파렛트」 주제의 Tag & Load(팀), 「컨테이너 타워」 주제의 더 타워(팀) 등이 수상하였다. 일반부 대상을 받은 물류혁신팀은 국내 최대 규모의 도매시장인 가락시장에 스마트물류시스템을 구축 방법 및 기대효과를 제시했다. 학생부 대상을 받은 비상팀은 기존의 파렛트의 문제점을 보완한 RPP의 강점과 차별성 및 시장성에 대해 발표했다.

한국골판지포장산업협동조합

한국골판지포장산업 70년사 출판기념회

1953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 골판지 포장산업의 역사 총정리

한국골판지포장산업협동조합(이사장 김일영)은 창립 38주년 기념으로 1953년부터 2022년까지 골판지 산업 70년 역사를 집대성해 발간한 한국골판지포장산업 70년사의 출판기념회를 조합 Forest room에서 가졌다.



▲ 한국골판지포장산업협동조합이 창립 38주년을 맞아 한국골판지포장산업 70년사를 발간하고, 지난 17일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지난 달 17일 열린 기념행사에는 김진무 조합 전무의 사회로 자문위원, 비롯해 유관단체 관계자, 후원기업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김일영 이사장은 “바쁘신 와중에도 조합창립기념식과 70년사 출판기념 행사에 참석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린다”며 “그동안 70년의 역사를 엮어 내기 위해 10개월여를 준비하고, 자료를 발굴하면서 개척기업가들의 역경과 성취동기를 목도한 만큼 이분들의 뜻을 이어 받아 조합은 그들의 노고와 성과를 계속 이어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한국골판지포장산업 70년사는 골판지포장의 역사, 협회 및 협동조합의 설립으로 전개되어온 정책사업 등 업계의 역사를 조망할 수 있는 한편의 책으로 70년사는 총 7장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 1장 골판지포장 ▲ 2장 한국골판지포장공업의 탄생과 (사)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회의 발자취(1950년대~1970년대) ▲ 3장 지속가능한 골판지포장산업을 위한 협동조합의 등장(1980년대~1990년대) ▲ 4장 구조조정과 상생협력의 2000년대 한국골판지포장산업 ▲ 5장 자본시장으로 이끌린 골판지포장산업(2010년대) ▲ 6장 골판지포장 지속성장을 위한 신수요 창출과 정책 조성을 통한 비전 설정 ▲ 7장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총괄책임과 서울귀산학교 운영으로 이루어졌다. 그 외 부록에는 한국골판지포장산업 연표, 골판지포장산업 한국표준산업분류 제정 경과, 역대 산업유공자 포상 및 공적내용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한국포장수출입협회

제11차 정기총회 개최

제5대 정원영 회장 선임



▲ 한국포장수출입협회가 지난 11월17일 제11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한국포장수출입협회(회장 김치곤)의 제11차 정기총회가 지난 11월17일 오전11시 안성소재 (주)HPM글로벌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김치곤 회장은 인사말에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협회 활동이 둔화됨에 따라 제11차 정기총회를 미루어 개최함에 전회원사에 양해를 구하고 향후 회원사간 더욱 돈독한 유대관계가 이루어지고 해외시장 개척에 전념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정관개정과 제

10기 및 제11기 사업실적과 결산 및 예산(안)이 무수정 통과 되었으며, 제5대 임원선거에서 제5대 회장으로 (주)HPM 글로벌 정원영 대표이사를 만장일치로 선임하였고, 김치곤 회장을 명예회장으로 김영순 상근 부회

장을 고문으로 추대하고 총괄 부회장에 김영호 (주)협진 피에스 대표, 총무 부회장 동양원색 이국희 대표, 재무 부회장 신정훈 (주)HPM 글로벌 사장, 친교 부회장 (주)주광 이정숙 대표, 조직 부회장 (주)BMS글로벌 백승명 대표 등 5명의 부회장과 최원진(트로이), 고옥곤(퓨처팩), 김호동(메가팩), 임형택(씨에스텍), 최화중(티엠펜)대표 등 5명의 이사를 선임 하였다. 한편, 디엠(대표 김명근)이 신입회원사로 가입되었고 오는 12월 6일 2022포장수출인의 날 및 송년회 시 신규회장 이취임 행사를 갖기로 했다.

(사)한국포장기계협회

창립 28주년 기념식 개최

‘제24회 포장기계인의 날’ 과 ‘제23회 한국포장기계대상 시상식’ 도 함께 개최

(사)한국포장기계협회(회장 이시영)는 지난 11월 10일 협회 창립 28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기념행사는 서울가든호텔 그랜드볼룸 C홀에서 개최하였으며, ‘제24회 포장기계인의 날’ 과 ‘제23회 한국포장기계대상 시상식’ 도 함께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포장기계협회 이시영 회장을 비롯하여, 협회 이종우 고문, 강성규 고문, 김종철 명예회장



▲ 한국포장기계협회가 지난 11월 10일 협회 창립 28주년을 맞아 서울가든호텔 그랜드볼룸 C홀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등 협회 회원사 대표자와 임직원 60여명이 참석했다.

이시영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올해는 협회 창립 28주년이 되었다”며 “설립 이후 우리 협회는 국내 포장기계 산업의 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고 전했다. 이어 이 회장은 “지난 3년 여간 코로나로 경제·사회 활동이 크게 위축되었다. 이에 우리 포장기계업계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우리 포장기계산업은 코로나 방역을 위한 포장기계와 설비를 안정적으로 적시에 공급하여 위기를 극복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며 “이제는 새로운 도전을 위해 모든 포장기계산업계가 함께 힘을 모아 전진하자”고 말했다.

이어진 “제23회 한국포장기계 대상”에서는 장관표창(4명) 등 그간 포장기계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선정하여 포상했다. 지난 올해로 23회를 맞는 한국포장기계 대상은 포장기계 산업에서 기술개발, 품질향상, 경영관리, 수출판매 등의 분야에서 우수한 실적을 보여준 포장기계 및 관련기업의 대표이사와 근로자를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다. 올해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 (주)산호기계 김정수 이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 (주)카운텍 채수일 차장, 명기원 대리 (주)영테크팩 이지훈 전무이사가 각각 수상했다.

미주한인소상공인총연합회

美진출 제품 설명회 개최

한국기업 미국 진출 적극 도와

미주한인소상공인총연합회(회장 장마리아)는 지난 10월 31일(월) 오전 11시 서울시 중구의 LW컨벤션에서 미국에 진출을 희망하는 제품 설명회를 개최했다.



▲ 미진출 제품 설명회에서 미주한인소상공인총연합회와 국내기업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 설명회는 한국의 기업들과 미국의 기업들을 서로 연결시켜주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이 자리에는 (주)지오솔테크, (주)케이엠에프, 주식회사 코리아에어캡, (주)케이아이디엘의 대표 및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순수 국내기업으로서 PBS계 생분해성 수지를 개발하여 독일의 권위 있는 인증기관인 DIN CERTCO로부터 국내 최초로 Home Compost(홈 컴포스트) 인증을 획득한 지오솔테크와 농업용 비닐하우스에 사용 시, 조도와 단열을 동시에 해결해줄 생분해성 플라스틱 에어캡 필름을 개발한 코리아에어캡이 자사 제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며, 미국에 진출할 있는 기회를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미주한인소상공인총연합회는 6만 명 규모의 미국 내 소상공인 총연합 조직으로 조지아, 뉴욕, 델러스, 샌프란시스코 등 지역에 12개의 지부를 두고 있는 미주한인소상공인들의 권익을 대표하는 미국의 비영리 단체이다.

라인메세(주)

‘K 2022’ 전시회 성황리 종료

소재, 기계, 장비 등 플라스틱 분야 글로벌 리딩 기업 대거 참여

독일 뒤셀도르프 국제 플라스틱 및 고무 산업전시회 ‘K 2022’가 지난 10월 19일 ~ 26일에 성황리에 종료됐다. 올해 전시회는 ▲순환경제 ▲기후보호 ▲디지털화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됐다. 이를 구현하는 첨단 기술과 혁신적 솔루션이 한 자리에 모여 방문객들의 관심을 사로잡았다. 3개의 핫 토픽에 초점을 맞춘 K 특별행사도 큰 호응을 얻었다. 특별행사인 ‘미래를 형성하는 플라스틱(Plastic shapes the Future)’은 플라스틱 업계의 경제적, 사회적, 생태적 측면의



▲ ‘K 2022’가 지난 10월 19일 ~ 26일 전시 일정을 무사히 마치고 성공적인 마무리를 했다.

도전과제를 조명하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VDMA(독일기계공업협회) 및 13개 회원사가 준비한 순환경제포럼은 순환경제 구현에 있어 기술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여 업계에 인사이트를 전달했다.

순환경제 전환을 위한 다양한 솔루션과 혁신 기술, 소재, 장비 등이 179,000 sqm 전시장을 가득 메웠다. 이를 직관하고 참신한 아이디어와 비즈니스 발굴을 위해 전 세계 157개국에서 176,000명이 K 2022를 방문했으며, 해외비중은 70%에 달했고, 국내에서는 약 3,300명이 참관했다.

K 2022에는 플라스틱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이 대거 출품했으며, 60개국 3,037개사가 참가했다. 주요 기업으로는 폴리머 분야 글로벌 1위인 ExxonMobil을 비롯해 LyondellBasell, Reliance Industries, Braskem 등이 참가했다. 또한, 기계 및 장비 분야 리딩기업인 KraussMaffei, Netstal, Arburg, Engel, Wittmann Battenfeld, 스미토모, Fanuc 등이 참가했다.

국내 기업은 우진플라임, LG화학, 유도, 송원, 효성화학, SK케미칼, 금양 등 총 32개사가 참여했고, 한국합성수지가공기계공업협동조합은 공동관을 구성했다. 이렇게 구성된 우리 기업은 K 전시회를 통해 신제품, 자사의 혁신적 기술력을 전 세계 시장에 선보이며, 활발한 해외마케팅을 성공적으로 펼쳤다. 글로벌 플라스틱 산업의 혁신을 선도하는 K는 3년 주기로 개최된다. 차기 전시회는 2025년 10월 8일~15일에 열릴 예정이다. 관련 자세한 정보는 K 홈페이지(k-online.com) 또는 한국대표부 라인메쎬(info@messe.co.kr, 02-798-4343)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코엑스

제17회 서울국제식품산업전 개최

참가업체로 희성폴리머, 디에스팩 등 참가

‘제17회 서울국제식품산업전’ (이하 코엑스 푸드위크)이 지난 11월 2일부터 5일까지 개최됐다. 올해로 17회째를 맞는 코엑스 푸드위크는 국내·외 식품업계의 최신 트렌드를 소개하는 식품 산업 전문 전시회이다.



▲ 푸드 테크놀로지 전문전시회 ‘2022 코리아 푸드테크산업전’이 지난 11월 2일부터 5일까지 개최됐다.



▲ 희성폴리머(주)



▲ 디에스팩

올해 행사는 ‘픽 유어 테이스트(Pick Your Taste)’라는 주제로 총 895개 업체·1,479개 부스가 참가했다.

그중에서 디에스팩 주식회사는 친환경 EB 잉크를 사용한 파우치, 박스 파우치, 스파우트 파우치, 라벨 싸지대, 리드지, 튜브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였으며, 희성폴리머(주)는 전시회에 참가해 녹색기술인증과 단일소재 포장재, PCR 개발에 대한 정보와 액상용 고속필름, 여행용 파우치, 생분해 필름 등 2022년 개발 아이템을 참관객에게 선보였다.

한편 이번 행사는 ‘코리아 푸드테크산업전’, ‘HORECA 베이커리페어’, ‘HORECA 키친페어’, ‘드링크&디저트쇼’, ‘강소농대전’ 등의 전시회가 동시 진행되었으며, 부대행사로 2022 푸드테크 컨퍼런스도 열렸다. 이 컨퍼런스는 코엑스와 한국푸드테크협의회, 독일농업협회(DLG)가 공동 기획했다.

행사 첫째 날인 2일에는 우아한 형제들의 이현재 CPO와 삼성전자 박찬우 부사장이 ‘AI 및 메타버스’에 대한 강연을 가졌고, 이튿날인 3일에는 카카오헬스케어 황희 대표, 쥬비스 다이어트 민은주 부사장이 ‘개인맞춤’을 주제로 발표했고, 롯데중앙연구소 이경환

소장, 신세계푸드 송현석 대표 등이 ‘ESG’를 주제로 연단에 올랐다. 4일에는 두산로보틱스 류정훈 대표가 ‘조리/외식(소비)’에 대해 발표했다.

또 GS 네트워크 김성기 대표와 더맘마 김민수 대표가 강연에서 ‘주문/배송/물류(공급)’에 대해 논했고, ‘스마트제조(생산)’를 주제로 프레시지 박재연 대표가 강연하는 등 업계를 이끌고 있는 주요 기업이 연사로 나서며, 큰 주목을 받았다.

코엑스 사무국 관계자는 이번 푸드위크에 대해서 “빠르게 변화하는 식문화 패러다임과 미래 먹거리 관련 신기술을 한눈에 볼 수 있었던 자리”라며, “국내·외 바이어와 소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식품 산업의 미래를 살펴본 네트워크의 장이었다”고 말했다.

한국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플라스틱산업 60주년 및 제11회 플라스틱산업의 날 행사

플라스틱 · 석유화학업계 상생협약, 유공자 포상 및 시상 등 진행

플라스틱산업의 날 기념행사가 지난달 25일 롯데호텔 서울 2층 크리스탈볼룸에서 한국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이광옥) 주관으로 성황리에 개최됐다.

창립 60주년을 맞이하여 국회, 정부, 산학연 관계자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플라스틱산업의 발전사를 돌아보고 당면한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는 한편 지속 가능한 미래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플라스틱산업인의 각오를 다지는 자리가 되었다.

이광옥 회장은 개회사에서 “뜻 깊은 행사에 내빈과 플라스틱산업 유공자들을 지난 과거를 되돌아보고 미래를 기약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플라스틱 산업이 미래에도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친환경소재 확대 및 디지털 전환을 통하여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같은 정책에 적극 대응해 나아가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기념식 행사는 1부 플라스틱-석유화학업계 대·중소기업 상생협약식 2부 플라스틱산업 유공자포상 3부 60주년 기념 포상으로 진행되었다. 상생협약은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위한 소통과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협약은 연합회, 한국석유화학협회, 동반성장위원회,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으로 체결하였으며, 향후 상생협회의의 정기적인 개최를 통해 상생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운영하여 양산업 간 상생협력이 원활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

이다. 이날 포상은 대통령 표창,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 조달청장 표창 등 25점, 60주년 기념 특별포상이 13점 등 38명의 수상자를 선정해 시상했다. 영예의 대상인 ‘자랑스런 플라스틱산업인상’은 지난 50여년간 국내 플라스틱 산업발전을 선도해온 신진문(주)태광뉴텍 대표이사 회장이 역대 아홉 번째로 수상했다.



▲ 롯데호텔 서울에서 열린 '플라스틱산업의 날 기념행사'에서 내빈들이 파이팅 포즈를 취하고 있다.